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19년 1월 24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참고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김봉기, 차장 봉관수

Tel: (02) 759-4461, 4066 Fax: 759-4485 E-mail: mpdept@bok.or.kr

공보관: Tel: (02) 759-402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대외경제 여건]

□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세계경제지표

		18.1/4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미국	GDP성장률(전기비연율, %) ¹⁾	2.2	4.2	3.4	..	-	-	-	-
	소매 판매(전기비, %) ¹⁾	0.4	1.8	1.1	..	-0.2	1.1	0.2	..
	제조업생산(전기비, %) ¹⁾	0.5	0.6	0.9	0.6	0.2	-0.2	0.1	1.1
	ISM제조업(기준=50) ²⁾	59.7	58.7	59.7	57.0	59.8	57.7	59.3	54.1
	실업률(%) ¹⁾²⁾	4.1	3.9	3.8	3.8	3.7	3.8	3.7	3.9
	비농가취업자수증가(만명) ¹⁾²⁾	21.8	21.7	19.0	25.4	11.9	27.4	17.6	31.2
유로	GDP성장률(전기비, %) ¹⁾	0.4	0.4	0.2	..	-	-	-	-
	소매 판매(전기비, %) ¹⁾	0.1	0.8	0.0	..	-0.5	0.6	0.6	..
	산업생산(전기비, %) ¹⁾	-0.7	0.1	-0.1	..	-0.6	0.1	-1.7	..
	제조업PMI(기준=50) ²⁾	58.3	55.5	54.3	51.7	53.2	52.0	51.8	51.4
	경기체감지수(기준=100) ²⁾	114.0	112.5	111.5	108.8	110.9	109.7	109.5	107.3
중국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6.8	6.7	6.5	6.4	-	-	-	-
	수출(전년동기비, %)	13.7	11.5	11.7	4.0	13.9	14.3	3.9	-4.4
	소매 판매(전년동기비, %)	9.8	9.0	9.0	8.3	9.2	8.6	8.1	8.2
	고정투자(전년동기비, %) ³⁾	7.5	6.0	5.4	5.9	5.4	5.7	5.9	5.9
	제조업PMI(기준=50) ²⁾	51.0	51.6	51.1	49.9	50.8	50.2	50.0	49.4
브라질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2.8	1.7	1.2	..	-2.2	0.8	-0.9	..
러시아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2.8	3.2	2.9	..	2.1	3.7	2.4	..

주: 1) 계절조정

2)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3) 누계 기준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금년 들어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 등으로 그간 확대되었던 변동성이 다소 축소되었다.

국제금융지표¹⁾

		18.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3일
전세계 MSCI		522.9	524.3	484.6	490.9	455.7	478.7
- 선진국		2,175.5	2,184.0	2,022.0	2,041.4	1,883.9	1,980.1
- 신흥시장국		1,056.0	1,047.9	955.9	994.7	965.7	1,011.6
(중국 ²⁾)		2,725.3	2,821.4	2,602.8	2,588.2	2,493.9	2,581.0
VIX		12.9	12.1	21.2	18.1	25.4	19.5
환율	달러인덱스	95.1	95.1	97.1	97.3	96.2	96.1
	중국 ³⁾	6.84	6.88	6.97	6.95	6.88	6.79
	브라질 ³⁾	4.05	4.05	3.72	3.87	3.88	3.77
	인도네시아 ³⁾	14,867	14,904	15,185	14,294	14,430	14,181
국채금리 ⁴⁾ (%)	미국	2.86	3.06	3.14	2.99	2.68	2.74
	독일	0.33	0.47	0.39	0.31	0.24	0.23
CDS프리미엄(bp)	브라질	303.6	263.9	205.3	210.9	206.6	171.7
	인도네시아	127.3	130.3	157.7	141.1	137.5	123.3
	한국	42.2	37.1	40.5	39.9	38.9	35.0

주: 1) 기말 기준
4) 10년물 기준

2) 상하이 종합지수 기준

3) 미달러화 대비

-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기]

- 국내경제는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이어졌으나 소비와 수출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12월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지난해 10월 전망경로를 소폭 하회하겠지만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물경제지표

(%, p, 천명)

	2015	2016	2017	2018	181/4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GDP 성장률 ¹⁾	2.8	2.9	3.1	2.7	1.0	0.6	0.6	1.0	-	-	-	-
(민간소비)	2.2	2.5	2.6	2.8	0.7	0.3	0.5	1.0	-	-	-	-
(설비투자)	4.7	-1.0	14.6	-1.7	3.4	-5.7	-4.4	3.8	-	-	-	-
(건설투자)	6.6	10.3	7.6	-4.0	1.8	-2.1	-6.7	1.2	-	-	-	-
소매판매액지수 ²⁾	4.1	3.9	1.9	..	3.0	0.7	-0.5	..	-2.0	0.2	0.5	..
설비투자지수 ²⁾	6.9	-1.3	14.1	..	8.4	-11.0	-6.2	..	3.0	2.2	-5.1	..
건설기성액 ²⁾	5.0	15.4	10.1	..	2.5	-4.9	-4.4	..	-3.5	-1.8	-0.9	..
수출(통관) ³⁾	-8.0	-5.9	15.8	5.5	9.8	3.1	1.7	7.9	-8.1	22.5	3.8	-1.3
- 일평균 ³⁾	-8.7	-5.9	17.3	5.3	10.7	3.9	7.0	0.1	10.7	-4.1	3.8	-1.3
제조업생산지수 ²⁾	-0.3	2.4	1.6	..	-1.3	3.0	0.3	..	-2.3	1.1	-1.9	..
서비스업생산지수 ²⁾	2.9	2.6	1.9	..	1.0	0.2	0.1	..	0.0	0.6	-0.2	..
소비자심리지수 ⁴⁾	102.3	99.1	105.1	103.3	108.7	106.8	100.1	97.6	100.2	99.5	96.0	97.2
기업경기실사지수 ⁴⁾⁵⁾	71	70	80	75	75	78	73	72	73	71	73	71
취업자수 증감 ⁶⁾	280.5	231.4	315.7	97.3	183.3	100.5	17.4	87.8	44.6	63.7	165.3	34.4
(제조업)	145.8	-20.7	-17.5	-56.3	45.0	-91.2	-91.1	-87.6	-41.6	-45.3	-90.6	-127.0
고용률(원계열)	60.5	60.6	60.8	60.7	59.6	61.2	61.1	60.9	61.2	61.2	61.4	60.1
실업률(원계열)	3.6	3.7	3.7	3.8	4.3	3.9	3.8	3.4	3.6	3.5	3.2	3.4

주: 1) 계절조정, 전기비

2) 계절조정, 전기비,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기준

3) 전년동기비

4)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 제조업 업황BSI 기준

6)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의 증감, 전년동기비

[물 가]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가격 하락, 농축수산물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1%대 초반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초반 수준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점차 높아져 하반기 이후 1%대 중반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

					(전년동기비, %)			
	18.1/4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소비자물가 ¹⁾	1.1 (0.9)	1.5 (0.3)	1.6 (0.5)	1.8 (0.0)	2.1 (0.8)	2.0 (-0.2)	2.0 (-0.7)	1.3 (-0.3)
▪ 농축수산물 (농산물)	0.7 2.6	2.0 6.9	4.9 9.5	7.1 13.6	8.6 14.9	8.5 15.2	7.6 14.8	5.2 10.7
▪ 공업제품 (석유류)	0.7 3.8	1.5 6.7	1.8 11.7	1.1 5.1	1.8 10.7	1.8 11.8	1.4 6.6	0.1 -2.8
(석유류 제외)	0.3	0.7	0.3	0.5	0.4	0.3	0.6	0.6
▪ 전기·수도·가스	-1.9	-3.0	-7.0	0.3	-1.8	-1.9	1.5	1.4
▪ 서비스	1.5	1.7	1.5	1.6	1.6	1.5	1.7	1.5
근원인플레이션율								
▪ 식료품·에너지 제외	1.2	1.4	1.1	1.1	1.1	1.0	1.2	1.1
▪ 농산물·석유류 제외	1.1	1.3	1.0	1.3	1.3	1.2	1.4	1.3
기대인플레이션율 ²⁾	2.6	2.6	2.6	2.4	2.5	2.5	2.4	2.4

주: 1) ()내는 전기비 2)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일반인 기준),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금융시장]

- 금융시장은 지난해 12월중 변동성이 확대되었다가 금년 들어서는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주가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하락한 후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기대 등으로 반등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하락 후 소폭 등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하면서 안정세를 보였다.

국내금융지표

	18.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3일
통안증권금리(91일물, %) ¹⁾²⁾	1.58	1.61	1.69	1.73	1.76	1.75
국고채금리(3년물, %) ¹⁾²⁾	1.92	2.01	1.94	1.90	1.82	1.80
국고채금리(10년물, %) ¹⁾²⁾	2.31	2.36	2.24	2.11	1.95	1.98
KOSPI ¹⁾	2,323	2,343	2,030	2,097	2,041	2,128
원/달러 환율 ¹⁾	1,113	1,109	1,140	1,121	1,116	1,127
(전월말대비 절상률, %)	0.52	0.32	-2.66	1.64	0.49	-1.03

주: 1) 기말 기준 2)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주택가격은 둔화세가 이어졌다.

가계대출 및 주택가격

	18.1/4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은행 가계대출 증감(조원) ¹⁾²⁾	9.5	15.6	15.8	19.9	5.1	7.8	6.7	5.4
▪ 주택담보대출 ²⁾³⁾	5.9	8.6	10.1	13.2	3.7	3.5	4.8	4.9
▪ 기타대출 ⁴⁾	3.6	6.9	5.6	6.6	1.4	4.2	1.9	0.5
주택 매매가격(%) ⁵⁾	0.5	0.0	0.3	0.3	0.3	0.2	0.1	0.0
▪ 수도권 ⁶⁾	1.1	0.4	1.0	0.7	0.7	0.4	0.2	0.1
(서울)	2.4	0.8	2.2	0.8	1.2	0.5	0.2	0.0
▪ 광역시 ⁷⁾	0.1	-0.1	0.0	0.4	0.1	0.2	0.1	0.1
▪ 지방 ⁸⁾	-0.1	-0.3	-0.3	-0.1	0.0	0.0	0.0	-0.1

주: 1)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중별대출은 신탁 제외

2)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

3) 주택관련대출 포함

4)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5) 전기비, 분기는 전기말월대비, 한국감정원 지수 기준

6) 서울, 인천, 경기

7)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8) 수도권 제외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는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